

하산 타헤리안 주한이란 대사와의 단독 인터뷰

“이란은 한국기업의 진출과 경제개발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 이란 공식방문 기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월 27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작년 이란 방문을 계획해 왔다며 정부도 대통령의 방문을 매우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과거 한국기업들, 특히 건설 중공업 분야 기업들은 이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 국가 원수가 이란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리아포스트가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와의 단독 특별 인터뷰를 기졌다. 다음은 이란 대사와 기진 단독 인터뷰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 이후 최근 많은 나라로부터 관계 증진을 위한 러시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4~5년간 이란은 국제 제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금년 1월 6일 유엔 안보리와 성공적으로 핵 협정을 타결하고 그 결과로 현존의 모든 제재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란은 그 협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의 누구나 이란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데 규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이란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란과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의 규제도 없습니다. 이란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속에서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이란과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방문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며 여러 형태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 후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국가로부터 정치 경제 우호 사찰단을 맞이 하였는데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 각국의 외무장관들, 예를 들면 프랑스 독일, 영국 외무장관들과 외교수준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몇 백 명 규모의 사찰단과 경제 팀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안건은 이란과 각 대표국과 간의 교역기회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역시 이란에서 기회를 얻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비즈니스와 건설부문 그리고 가능한 여타 많은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본직은 이란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한국인들이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란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란에서 새 기회를 발견하는데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 예를 들면 중국 등 많은 나라의 국가원수가 이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아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란과 한국은 2008년 상호 무역이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큰 교역국입니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관계를 말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양국은 상대적 선린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주요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아직 이란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2009년 5월에 이란에서 열린 주요 해외투자 설명회 때 한국 외무장관 일행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9월 26~27일간 이란 가스 포럼에도 독일, 영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와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지난 2009년 2월 29일에 이란은 한

국과 공동으로 경제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란-한국 공동 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이란의 대화와 접촉은 줄곧 장관급 이었습니다.

이란의 국경일은 매년 2월 11일에 기념

하게 되는데 이날은 1979년에 성공한 이슬람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슬람혁명

은 이맘호메이니 국가지도자의 혁명한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하메드 리자파가 이끄는 이란의 팔레비왕조의 전복을 기념하는 날인데 당시 그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비아리는 비밀경찰조직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들은 독재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사에 향거하는 시위들이 1977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곧 시민항거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주된 구호는 자유, 독립 그리고 이슬람공화국 이었습니다. 결국 사는 1979년 1월 16일 이란에서 국의 도피를 하였고 폐르샤의 마지막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란 지도자가 외국에서의 망명을 끝내고 귀국을 하여 테헤란에서 수백만 이란국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지지 않아 절대군주정치는 2월 11월에 막을 내렸고 같은 날 이란 국민은 그들의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 4월 1일 전국적인 국민투표에서 대승리를 획득한 이란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슬람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국제 제재 해제 이후 이란 경제 개발에 있어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란은 8천만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4천억불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연ガ스생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인된 원유 매장량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큽니다. 이란은 또한 자국 및 국제 투자자들에게 무한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교역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개에 달하는 국내 각지에 위치한 자주무역 지역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혜택이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에는 근 50개의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이 존재하며 사업규모는 총 1,850 억불에 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조인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세계 규격에 맞는 승용차와 상용차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산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개발분야에서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나노기술, 의료장비 및 통신분야에 투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과 이란이 협력할 부분에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예를 들어 생산의 강화 확대를 위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 발행인 칼럼

한국과 세계를 잇는

코리아포스트의 5개의 영문과 국문 매체



발행인 겸 회장
이경식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5년은 한국은 영문매체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본지 발행인 겸 회장이 문화부장과 특신부장을 역임한 영자신문 The Korea Herald와 1973년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한 영자신문 The Korea Times가 거의 유일한 영문 매체였다. The Korea Herald와 The Korea Times에서의 경험과 영문언론에 대한 ‘我執’(Penchant)으로 영문월간 The Korea Post를 창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매체는 영문월간 The Korea Post(www.koreapost.com) 이외에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국문인터넷신문 ‘더 코리아포스트’ (www.koreapost.co.kr), 국문격주간지 (<http://www.koreapost.co.kr/pdf/list.php>), 일간영문뉴스레터 등 5개의 매체로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위의 5개의 영문과 국문매체는 어느 언론 매체와는 달리 한국의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세계로 알리고 또 세계의 기업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알리는데 결코 인색하지가 않다.

코리아포스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 겁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해서 국내외 독자들의 알 권리와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Reporting all the news without fear or favor”라고 한다.

코리아포스트 5개 매체의 기사는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토픽을 **深層의**으로 조사 분석하고 뉴스 트랜드에 대한 **權威있는** 분석을 제공하여 사건의 결과를 **豫測하게** 한다.

코리아포스트는 한국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심층 보도한다.

‘코리아포스트’의 5개의 영문 및 국문 매체는 또한 국내 111개 대사관 및 국외 주재 100여개의 겸임 대사관의 각국 대사와 부대사 및 상무 및 정치 담당 공사 및 참사관, 2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매년 증가하는 2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필수적인 **情報誌**가 되어 있다.

특히 매일 아침 일찍이 Email로 발송되는 Korean Daily Media Headlines는 수신하는 220여 개국의 대사 및 기타 선임 외교관을 통해서 전달(Forward)의 방식으로 대량 추가 전파되며 일선만 독자만도 85,000명에 달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Update 되는 The Korea Post Online (www.koreapost.com)은 국내 어느 영문매체보다도 신속히 헤드라인 뉴스를 국내외 외국인 독자에게 송신한다.

영문 The Korea Post Media의 편집 원칙은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Manual of Style를 따르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편집 레이아웃은 뉴욕의 Society of Publication Designers 와 Jan V. White著 Editing by Design 그리고 J. W. Click의 Magazine Editing and Production 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편집, 집필, 취재 등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言論學者 Roland E. Wolseley, Fraser F. Bond, Warren K. Agee, John Hohenberg, Chilton R. Bush 및 Ruth K. Kent 등 대가들의 Trend 따르고 있다.

국내외에 알리고 싶은 피드백(Feedback)과 보도자료는 edt@koreapost.co.kr에서 받고 있다.

기사개재 문의: Tel 02-2298-1740~2, Fax 02-2298-9506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오른쪽)를 인터뷰하는 이경식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겸 회장. 지령 31년의 코리아포스트는 현재 영문 3개와 국문 2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문에서 한국기업들에게 꽤 유익한 열린 기회가 많습니다. 현대가 전에 참여하고 있던 석유와 가스 부문을 보자면 제재 해제로 이란이 투자처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8천만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4천억불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연ガ스생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인된 원유 매장량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큽니다. 이란은 또한 자국 및 국제 투자자들에게 무한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교역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개에 달하는 국내 각지에 위치한 자주무역 지역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혜택이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에는 근 50개의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이 존재하며 사업규모는 총 1,850 억불에 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조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8천만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4천억불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연ガ스생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인된 원유 매장량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큽니다. 이란은 또한 자국 및 국제 투자자들에게 무한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교역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개에 달하는 국내 각지에 위치한 자주무역 지역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혜택이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세계 규격에 맞는 승용차와 상용차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산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개발분야에서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나노기술, 의료장비 및 통신분야에 투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과 이란이 협력할 부분에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예를 들어 생산의 강화 확대를 위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프랑스와 이태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란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방송이 경제적인 성격이 될 것이고, 유럽 국가들은 이란시장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란 시장을 개척 하기를 권합니다.

본지는 성실하고 균형하고 열정적인 한 국민들이 늦기 전에 공격적으로 이란 시장을

(2면에 계속)